

2019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진안군, 기재부 단계 집중 노력 신규사업 87건 발굴, 추진상황 지속 점검 등

진안군은 4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부군수실에서 개최했다.

군은 2019 국가예산 신규사업 87건(3,851억원)을 발굴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매주 간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처단계 반영을 위한 신규예산 확보 대응에 주력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달 25일 각 부처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재부의 예산심의에 대비해 국가예산 실무자의 기재

부 상시방문과 문제사업에 대한 사전 대응 활동 착수를 위한 금후계획을 중점 보고했다.

군은 부처단계에서 반영된 35건 2,019억원 중 1차 삭감심의 대상이 된 사업들에 대해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해 최종 반영과 반영액 확대에 힘쓰고 미반영 사업 17건 1,000억원에 대해서는 정치권공조를 통해 구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근주 권한대행은 "국가예산 신규사업 확보는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점

근하여 끈기 있게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며 "오늘 보고회를 통해 부처 반영 사업들은 물론 미반영 사업 중 주요 사업이 모두 진안군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기재부는 물론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목표하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섬진강르네상스 상생협력 사업 등 2019년도에 신규사업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도 2020년 이후에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타당성조사, 주민동의,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진안군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민주당 지도부 매가톤급 지원 유세

인규백 의원 등,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민주당 후보들 지지 호소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지난 주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양자대결로 전개되고 있는 무주군수선거전을 돕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지원이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주당 후보의 약세지역으로 분류된데 따른 당 지도부의 특단의 조치로 보여 진다.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

지난 1일 당 최고위원인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의 무주읍민 폭소리청취를 필두로 같은 날 저녁 이어진 출정식에는 문제인의 복심 전제철(경기 안산상록갑),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과 해당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 문제인 대신후보 총괄수석부본부장을 지낸 강기정 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백경태 군수후보를 비롯한 이번 지방선거에 출전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전제철 의원은 "민주당의 적통 백경태 후보가 무주군수로 당선되면 무주군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으며 표창원 의원은 "무주군의 대표적 관광시설인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정상화적인 운영과, 태권도 등 남북스포츠문화교류가 무주군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해 유권자들로부터 환호를

이끌어냈다.

2일에는 전대현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이, 3일에는 무진장 지역구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서울 종로)과 장수 출신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옆 마을 영동 출신으로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법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정 전 의장은 "무주군민께서 백경태 후보를 당선시켜 준다면 내가 백경태의 머슴이 되어 무주발전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 무주군선대위는 6일과 9일에도 각각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과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의 대규모 지원유세를 준비 중이며 이외에도 당내 스타의원들의 지원유세가 선거 기간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기자

무주군, 6월 월례조례... 21일 무주산골영화제 개최 등 주의 당부

무주군은 4일 전통신회의의 집에서 6월 월례조례를 가졌다. 이날 월례조례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2백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에 관한 영상물 시청에 이어 6월 당면 업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황 군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

열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법정업무 추진과 선거법 준수, 선거준비 등의 의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성공과 관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폭염과 장마 대비 예방활동 강화, 신속집행 및 영농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기자

무주군, 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기간제 근로자 72명 선정

무주군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72명을 정규직인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고용안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무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부서 의견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범위와 정했으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대상자를 확정된 후 부서 평가 및 결격사유 조사를 통해 적격자를 최종 정규직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60세까지의 정년을 보장받으며 명절상여금 등의 후생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임금은 정부의 표준임금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현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지난 4일 전통신회의의 집에서 임용장을 받은 김 모 씨(47세)는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올 때부터 많이 기다렸는데 임용장을 받으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더 큰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덕천지구 신규 전원마을 필지분양 완판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일원에 덕천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택지 20필지가 4일 현재 모두 완판 됐다.

군은 1차 분양에서 17필지가, 지난달 30일 2차 분양에서 3필지가 분양됐다.

특히 2차 분양에서 3필지에 16명이 접수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진안군은 2만7,066㎡(주택용지 9,273㎡, 공공시설용지 6,691㎡, 녹지용지 11,102㎡) 규모로 택지 20필지를 조성하고 있어 전주권 배후도시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택지 조성은 6월 말 완료 될 예정이며 선정된 20필지 분양 선정자들은 6월중 계약을 통해 7월부터 전원마을 건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원마을 분양 성화에 힘입어 북부마이산 인근에도 신규사업 지구로 마이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30세대의 신규 도시민을 유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농산물 유통판매망 개선" 공약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4일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판매망 개선 △일반 영농자재와 친환경영농자재 반 값 지원을 공약으로 내놨다.

황 후보는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시스템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주읍, 안성면, 무풍면의 산지유통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농산물 유통체계·판매망 구축을 위한 농협과 행정기관의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며 "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계한 대형마트를 비롯한 홈쇼핑, 대형급식자재 등 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일반 영농자재와 친환경영농자재에 대한 반 값 지원제도를 마련해 관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벼 육묘장 사업 시행으로 농가의 농업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해 돈 버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기자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산부대상 '마미든든' 운영

15일까지 접수

장수군 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임산부대상 한의약 건강프로그램 '마미든든'프로그램을 6월 15일까지 접수 받아 운영한다.

마미든든이란 '엄마(mom)의 마음(맘)을 든든하게 하라'라는 뜻의 임신 부교실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 및 산후유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 의료원 한의사와 외래 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내지역은 임신부 2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원 3층 중회의실에서 6월 20일 ~ 7월 12일(5회차)까지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임신·출산에 대한 잘

못된 상식과 민간요법을 바로잡는 한의약 교육을 비롯해 한방기공체조,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산후풍 예방, 임신부 및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배냇저고리 아기용품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저 출산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미든든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임신부는 장수군 보건의료원(☎350-3117)으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불법 폐의류 수거함 68개 7월부터 전면 철거

장수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 68개를 전면 철거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주택가와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불법 의류 수거함이 관리되지 않아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자 5월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6월 1일부터 2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관내 폐의류 수거함을 전면 철거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폐의류 수거함 철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부지내에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된 의류수거함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폐의류 수거함이 적법하고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AN GOGWON